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우리, 하나로...” 빛고를 곳곳 화합 하모니

12·16·30일 광주시립합창단 ‘천원의 행복’ 공연 북구·동구·광산구립합창단, 리더안팩토리 협연

클래식부터 가곡, 뮤지컬, 대중가요까지. 광주시립합창단과 구립합창단의 하모니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가 오는 12일과 16일,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3개구(북구·동구·광산구)에서 펼쳐진다.

이번 기획연주회는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천원의 행복’을 소재로 세웠다.

1천원이라는 부담 없는 관람료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2일 북구합

창단과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16일은 동구합창단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30일 광산구립합창단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연 밴드로는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리더안팩토리가 함께 한다.

공연은 바리톤 김창식이 윤학준 작곡가의 ‘잔향’ 무대로 서막을 연다. 이어 왈츠의 황제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소프라노 정혜진의 독창으로 선보이며 여성 2중창 곡 ‘꽃의 이중창’이 시민들과 만난다.

다음 순서로는 구립합창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먼저 오준혁 지휘의 북구합창단은 ‘강원도 아리랑’과 ‘가을편지’를, 박병국 지휘의 동구합창단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름 편지’, ‘Sw



리더안팩토리

ingin’ with the Saints’를 선보이며 박호진 지휘의 광산구립합창단은 ‘가고파(전편)’, ‘그대 있는 곳까지’, ‘산 할아버지’ 등 각 구립합창단들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시 이어지는 광주시립합창단 무대로는 남성 4중창, 아카펠라 합창, 전단원 합창이 준비돼 있다. 남성 4중창으로 세계 3대 테너 파바로티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 유명한 ‘O Sole Mio’,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지금 이 순간’ 등 다양한 장르 곡을 들려준다. 합창 곡으로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등 클래식부터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거북이의 ‘비행기’ 등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광주시립합창단과 각 지역구립합창단의 연합 합창곡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된다.

광주시립합창단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의 ‘합창’ 무대가 시립과 구립,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함으로써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 삼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4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천원. /최명진 기자

노갈 콘서트 ‘일상윤회’(日常輪廻)

내일 씨어터연바람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적 성향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노갈(NOGAL)이 빛고을 무대를 찾는다. (사진)

노갈 콘서트 ‘일상윤회(日常輪廻)’가 오는 5일 동구 씨어터연바람에서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밴드 ‘나비맛’에서 여러 앨범을 내며 꾸준히 활동해온 그는 최근 개인 정규 앨범 ‘일상윤회’ 발매를 계기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투어는 발매한 앨범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수의 공연을 하며 독립 음악가로서 음반을 제작, 완성하며 음악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가 추구하는 밴드 음악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 짓기는 어렵다.



2020년 4월 첫 녹음을 시작한 이번 앨범은 세월의 흐름 만큼이나 다양한 장르의 곡이 담겨있다. 어느 곡 하나 빠지지 않고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이날 공연에서는 표제곡인 ‘일상윤회’를 비롯해 약 15개의 수록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 현장 구매는 3만원, 사전 예매는 2만원으로, 공연 당일 2시간 전까지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226-2446.

/최명진 기자

도균 작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

제6회 광주창작희곡 대상 수상

민선이 ‘남만과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 우수상 선정

제6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대상에 도균(경기) 씨의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민선이(광주) 씨의 ‘남만과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3일 “전체 응모작 16편 가운데 예심을 거쳐 6편의 본선 심사 결과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수상작 ‘내 이름은 이장수입니다’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으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인물들의 실감나는 사투리 묘사와 장면을 디테일하고 극적으로 잘 구성했다”며 “하지만 과거로 플래시백 되는 여러 장면 구성은 영화 등 영상물에서의 장치로 영화시나리오를 보는 듯했다”고 평했다.

우수상 ‘남만과 사랑이 흐르는 충장포차’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다. 갈등의 구성과 해결이 명확하며, 소소한 일상의 전개에서 과거의 비밀과 현재를 잘 이어주고 있다”면서 “다만 그 갈등의 시작과 해결점이 다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다소 아쉬웠다”



도균

민선이

고 밝혔다.

이번 창작희곡 공모전은 광주 서구와 서구문화원이 주최·주관했다.

창작희곡 수상작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0회 광주시민연극제 참가극단에 대해 대본이 제공돼 공연 무대에 올 수도 있다.

안희철 심사위원장(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은 “모든 작품에서 진지한 주제 정신과 역사적식이 돋보였으며 결말을 향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느껴졌다”며 “희곡은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이라는 점에서 제한된 무대와 시간 안에 극적 구조와 갈등을 쌓고 이것이 해소되는 극의 구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0회 광주시민연극제 참가극단은 오는 7월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전세계 버스킹 뮤지션 모여라”

동구문화관광재단, 내달 3일까지 참가자 접수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할 뮤지션을 모집한다.

올해 3회를 맞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 동구와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다. 총 1억 원 상금의 버스킹 경연대회와 수상자 후속지원, 음악산업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페스티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경연 본선 진출팀(2팀)에는 경연 기간 숙박 및 축제장 일일에서의 버스킹 공연, 축제 공식 창구를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국내 수상팀 중 2개팀에는 해외 음악축제·마켓 참가 지원 또는 공연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광주 버스킹 월드컵’ 출신 뮤지션으로서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경연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뮤지션으로, 국적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곡은 장르 제한이 없으며 창작곡, 기성곡 모두가 가능하다. 단 지난해 본선 진출팀 또는 역대 수상자는 참가 불가.

총 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원으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경연 모습

로, 총 9개팀에 시상하며 1위인 ‘골든 버스킹상’에는 상금 5천만원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버스킹 뮤지션은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광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buskingworldcup.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4400-6554. /최명진 기자

킹 월드컵’ 풋말 또는 멘트가 삽입된 라이브 영상 링크를 기재해야 한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재단 누리집 및 광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buskingworldcup.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4400-6554.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문의 : 062)650-2099